광양시 국공립어린이집 48개소로 확충

2022년까지 매년 7개소씩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조성

광양시가 국공립어린이집을 올해부터 매년 7개소씩 2022년까지 48개소로 확충한다.

이번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은 오는 2022년까지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률 40% 확대'라는 현 정부의 국정과제에 부응하고, 학부모의 선호도가 높은 국공립어린이집을 늘려 보육과 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현재 광양시에는 국공립어린이집 13개소가 운영 중에 있으며, 시는 어린이집 수급상황과 보육수요를 감안해 기존에 운영 중인 민간·가정어린이집을 매입하거나 무상으로 임차해 국공립으로 전환해 나갈 계획이다.

올해는 광양읍 한빛, 슬기, 중마동 민족사관 등 민간어린이집 3개소와 중마동 한아름, 꼬마또래 등 가정어린이집 2개소를 매입한다.

또 공동주택 내 민간어린이집 무상임차로 광양읍 창덕에버빌2차아파트 어린이집 1개소와 올 하반기 중으로 민간어린이집 장기임차 1개소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시는 장기임차를 제외한 6개소에 대해 오는 8월 개원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 4월 광양시의회에서 매입대상 어린이집 5개소의 공유재산관리계획과 무상임차대상 어린이집 1개소의 민간위탁동의를 받았다.

특히, 시 최초로 광양읍 창덕에버빌2차아파트 단지 내 개인에게 유상임대 운영하던 창덕어린이집을 시가 10년간 무상임대하기로 지난 3월 협약을 체결함에 따라 아파트 입주민들의 자녀의 보육환경을 개선하는데 선도모델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양균 교육청소년과장은 "정부의 지속적인 확충에도 불구하고 국공립 비율은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며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으로 보육의 공공성을 강화해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양시 어린이집은 총 138개소로 5,863명의 어린이 중 803명이 국공립어린이집을 다니고 있다.

김승호 전남동부취재본부장

순천교육지원청, 독도 역사문화 탐방 실시

중학생 35명과 교직원 및 관계자 15명 참여

순천교육지원청은 최근 2박 3일 동안 관내 중학생 35명과 교직원 및 관계자 15명이 참여하는 '우리땅 독도 역사 문화 탐방'을 실시하였다.

이번 탐방은 일본의 지속적인 역사왜곡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며, 우리땅 독도를 바로 알고 영토의식을 확고히 하여 바른 역사관을 기르고자 실시하였다.

한국수자원공사 주암지사(지사장 이병협)는 주암댐 주변지역 육영사업의 일환으로 우리 지역 학생들이 울릉도, 독도 역사 문화탐방을 실시할 수 있도록 탐방관련 예산을 전액 지원하였다.

예기치 못한 기상상황으로 인해 독도에 입도하지 못한 탐방단은 울릉도에 있는 독도경비대원들을 방문하여 위문품을 전달하고, 독도 플래시몹을 함께하며 독도가 우리 땅임을 새삼 깨닫게 되었다.

탐방단은 독도경비대원 방문과 함께 독도의 역사 및 자연에 대해 배우고, 울릉도 산업시설 및 해양생태를 탐방하는 등 울릉도·독도를 체험하는 소중한 시간을 가졌다.

독도탐방에 참가한 한 학생은 "울릉경비대에서 독도경비대원들이 열심히 훈련하는 모습을 보고, 그 앞에서 '독도 플래시몹'을 하게 되어 영광스러웠다"며 "울릉도·독도의 아름다움과 소중함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고, 이런 체험 기회를 주신 주암지사 관계자분께 감사드린다. 친구들에게도 독도의 중요성과 역사적 의의에 대해 꼭 알리고 싶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국수자원공사 주암지사는 학생들의 역사의식 고취를 위해 '우리땅 독도 역사문화 탐방'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순천=김승호 기자

순천시, 국민디자인단과 함께 돌봄서비스 모델 개발

행안부 '국민디자인단 지원과제 선정' 위촉식 개최

순천시는 지역공동체 중심 맞춤형 돌봄서비스 모델 개발을 위해 최근 서비스디자이너, 전문가, 시민 등 10명으로 구성된 '국민디자인단'을 위촉했다.

이와 함께 올해 추진과제인 '세대어울림 보육스테이션 조성' 사업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국민디자인단' 사업은 정부의 열린 혁신 정책의 일환으로 국민이 정책 과정 전반에 참여해 정책을 발굴하고, 국민 수요를 반영한 다양한 정책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국민 참여형 정책개발 모델이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4월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2018년 국민디자인단 서비스 디자이너 지원과제'를 공모한 바 있다. 공모 결과 순천시 외 32개 지자체가 '세대어울림 보육스테이션 사업'으로 최종 선정되어, 한국디자인진흥원 서비스 디자이너를 지원 받게 됐다.

시는 오는 6월 1일까지 현재 추진하고 있는 순천형 마을돌봄 사업 '세대 어울림 보육스테이션'에 참여할 돌봄공동체를 모집한다.

선정된 공동체는 국민디자인단과 함께 마을공동체가 중심이 되어 아이를 돌보는 맞춤형 모델을 개발해 나갈 계획이다.

순천시 관계자는 "국민디자인단 활동을 통해 시민들의 요구사항을 발굴하고, 정책에 반영해 주민 주도적 아이 돌봄서비스의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 지역이 함께 아이 키우는 문화 형성과 아이 키우기 행복한 환경을 지속적으로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순천=김종영 기자

나주시, 위생업소 시설환경 개선 사업 추진

나주시는 2018년 전라도 정명 천년을 맞아, 나주 방문객의 편의 향상 및 쾌적한 환경 제공을 위해 관내 위생업소를 대상으로 시설개선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시는 지난 16일 보건소 회의실에서 열린 위생업소 지원 심의위원회 회의를 통해 일반음식점 23개소, 떡방앗간 4개소, 숙박업소 2개소 등 사업대상지 총 29개소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시는 올해 10월까지, 사업비 200백만 원(자부담 50%)을 투입, 저온냉장고 및 CCTV 설치, 노후화 된 주방·화장실 개보수 등 최대 500만원 한도 내 위생업소 시설개선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단, 목적 외 사용 방지를 위해 개선비용은 사후 교부된다.

신청 기준은 주민등록상 주소가 나주시에 있고, 1년 동안 영업정지(과징금 포함)이상의 행정처분 이력이 없거나, 국세 및 지방세를 체납한 사실이 없는 현재 영업 중인 업소가 해당된다.

임대사업자의 경우 건물주 동의를 얻어야 하며, 신청업소가 제출한 사업계획서가 본 취지와 맞지 않을 경우 제외된다.

또, 보조금을 교부 받은 사업자는 천재지변, 영업부진 등의 사유로 폐업한 경우를 제외, 일정기간(5년 이상) 영업을 유지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보조금 전액을 반환해야 한다. 아울러 동일 업종으로 영업을 양도한 경우를 제외, 해당 업소를 매도, 양도, 교환 또는 대여나 담보로 제공한 경우 나주시에 별도 신고해야 한다.

시 선해병 보건소장은 "나주를 찾는 관광객들을 위한 편의 제공 및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 위생업소 환경 개선에 최선을 다해갈 것"이라며, "지역 상인들에게 보다 많은 혜택이 지원될 수 있도록 사업 대상 확대를 적극 검토해가겠다"고 전했다.

화순군, 든든한 동반자 '치매 파트너' 양성

화순군은 5월 2일부터 건강보험공단과 연계하여 건강백세운동교실에 참여하는 경로당 9개소 참여자 140명을 대상으로 치매 파트너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교육은 치매환자와 가족들을 이해하고 배려하기 위한 내용으로 치매 원인과 증상 및 치료, 치매환자와 가족이해, 치매 파트너의 역할과 활동 등을 교육하며 치매예방체조를 실시하고 있다.

화순군 보건소는 지역사회의 치매에 대한 부정적 인식 개선 도모와 건전한 돌봄문화 환경 조성을 위해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치매 파트너' 양성 교육을 운영해오고 있다.

치매 파트너란 치매에 대한 특별한 지식이 없어도 초등학생 이상이면 누구나 될 수 있으며, 일상에서 만나는 치매환자에게 먼저 다가가서 배려하기, 주변에서 치매환자와 가족이 있다면 꾸준히 연락하고 안부 묻기, 교육에서 배운 정보 주변에 알리기 등의 활동을 수행하게 된다.

조영덕 보건소장은 "치매환자와 가족들의 든든한 동반자인 치매 파트너 양성 교육을 기관, 학교로 확대하여 지역사회에 치매 파트너가 많이 양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화순=박순철 기자

광양시, 농촌일손 돕기 알선 창구 운영

광양시는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21일부터 6월 20일까지 한달간 공직자, 유관기관·단체, 기업체 등과 함께 농촌일손 돕기에 나선다.

시는 시, 읍·면·동, 농협중앙회 시지부에 '농촌일손 돕기 알선 창구'를 개설하고, 공직자, 군부대, 학교, 기관단체와 기업체 등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할 계획이다.

또 시 전체 공직자들이 1회 이상 농촌 일손 돕기에 참여토록 해 농촌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도농이 상생하는 분위기를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농촌일손 돕기는 일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령이나 독거노인·장애농가 등 기초생활 보호대상과 부녀자, 보훈가족 등을 대상으로 우선적으로 지원된다.

시는 매실과 양파·마늘수확, 과일솎기작업 등 기계화가 어려워 직접 손으로 작업해야 하는 분야를 중심으로 농촌일손 돕기 인력을 지원할 계획이다.

김재복 친환경농업팀장은 "농촌일손이 가장 필요한 시기에 기관과 단체에서 함께 동참해 농촌의 일손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며 "올해에도 많은 기관과 단체에서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참여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해 5월 25일부터 6월 24일까지 공직자, 유관기관 등 20개 단체 774명이 참여한 가운데 80농가를 대상으로 농촌의 일손부담을 덜어드린바 있다.

김승호 전남동부취재본부장